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수산

"나는 돈 대학생이다"

강의실에서 만나던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등록금 인하를 소리치고 있는 이 여름, 대학교수라는 자리는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자괴감이 밀려드는 때는 많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던 날, 이른 아침 교정에 들어선 나는 학교 박물관 벽을 온통 가리듯이 걸려 있는 북한의 인공기를 보았었다. 왜, 누가 여기에 오늘 이 깃발을 거는가. 그때의 자괴감이라니. 그러나 이 여름에 느끼는 자괴감은 그때와는 또 다르다.

내 과목을 수강하는 꽤 많은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나선 제자 가운데는 윤호도 있었다. 지나간 겨울, 윤호가 모 재단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받게 되었을 때였다. 추천서를 써준 나에게 휴대전화로 장학증서를 찍어 보여주면서 '엄마가 막 울고 난리 났어요'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윤호, 바로 그 윤호가 광화문에서 열리는 등록금 인하 시위를 다녀온 것이다.

'저요, 그날 일찍 가서 처음에는 종이컵에 초를 꽂는 가내 수공업을 맡았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무슨 초를 꽂느냐며 끌고 가는 바람에 스피커 설치하는 일을 했어요'라며 그는 웃었다.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그것이 그가 들었던 피켓이었다.

대학생들이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사 표출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일이 사라진 지 몇 년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이른 봄 개나리꽃이 필 때나 반짝하다가 마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놓고 '개나리 시위'라는 이름까지 붙은 요즈음이다.

윤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교정에는 여름이 한창이었다. 그 푸름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이 마른 나뭇잎처럼 아프게 가슴에 쌓였다.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는 해도 그는 학교가 끝나면 독서실로 가서 새벽 2시까지 독서실 관리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서도 학교 강의가 없을 때는 또 '스마트폰 어플 운영'이라는, 휴대전화에 TV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일을 시간제로 한다. 하루 다섯 시간 밖에 잠을 못 자는 생활인 것이다.

자신은 등록금 걱정만은 안 해도 되게 장학금을 받지만 그 장학금은 '나 혼자만을 생각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그는 시위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건 사회를 생각하라고 내게 쥐어진 것이잖아요. 등록금 문제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힘겨워 하던 나였고, 현재 휴학하고 휴대폰을 팔고 있는 절친한 친구만 세 명이나 돼요." 자신을 그곳으로 이끈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었나 싶었다는 말을 이어가면서 그가 가만히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체 게바라.' 이번 학기 교양강의에서 다룬 테마의 하나가 체 게바라의 생애와 혁명관이었다. 반값등록금 시위 현장에서 강의시간에 나왔던 체 게바라의 얼굴을 떠올렸다는 것이었다.

체 게바라.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이면서 남미가 겪고 있는 제국주의의 횡포와 자본주의의 착취에 대한 절망과 분노 속에 쿠바 게릴라혁명에 뛰어들었던 체 게바라. 쿠바에서의 혁명에 성공한 후 그는 쿠바은행 총재와 산업부 장관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 모든 지위와 기득권을 버린 채 또다시 혁명의 길을 걷다가 끝내는 볼리비아에서 생포되어 죽음을 맞는다.

쿠바를 떠나며 어린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에서 체 게바라는 혼자의 삶이 아닌 시대와 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특히, 세계의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행해지고 있을 모든 불의를 너희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깨달을 수 있기 바란다.'

그날 광화문에는 대학생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도 많았다고 했다. "대학생이라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나가 있어야 하니까 대신 형, 누나, 동생들이 모인 거예요. 발언을 하러 무대에 올라갔던 중3 여학생이 수줍어하면서, 언니는 알바 가서 못 오고 제가 대신 왔어요 해서 다들 함성을 질렀답니다."

그날 광화문 시위장에 울려 퍼졌다는 노래는 서글프도록 자조적이다. '나는 돈 대학생이다. 나는 없고 돈만 있는, 돈 돈 돈 세상. 알바가 내 목을 조여 오는 세상아, 내가 바라는 건 살아있는 나 나 나.'

도대체 이런 현실을 정책담당자들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른들의 진정한 대답이 메아리쳐야 할 때다. 〈작가·세종대 국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정부, J프로젝트 입장 분명히 밝혀라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J프로젝트 부지 내 간척지 양도·양수를 놓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와 관련,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에 한국감정원을 통한 재감정 실시를 제안했다. 이곳은 이미 지난해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해 부지가격이 제시됐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요구는 국가가 공인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으로 법에도, 감정평가 규정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국가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F1(포뮬러원) 경주장의 양도·양수를 위한 부지 감정평가도 느닷없이 제3의 감정기관을 끼워넣어 언제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삼호지구 개발 역시 농어촌공사가 감정기관에 지난 2월 납품하기로 했던 감정평가서 제출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해 아직껏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공사가 J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 작정하지 않고선 이 같은 몰상식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 특히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농어촌공사의 발목 잡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그 반증이다.

정부는 이제 J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전남도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미루든지 결정할 것이 아닌가.

J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남도의 역점사업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지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 근무 중 '인터넷 놀이' 해서야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업무용 PC나 스마트폰으로 개인용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한다. 업무용 PC를 이용해 인터넷 서핑을 하는가 하면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게임을 하는 게 이젠 흔한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원인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화면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다니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실제로 본보가 최근 광주 A구청과 B경찰서 사무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한 직원의 업무용 PC 화면에는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가 링크돼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일부 직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경찰관은 업무용 PC를 이용,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뒤 웹 서핑을 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경찰관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몸은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시장이나 게임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 각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 근무 중 주식이나 게임,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지만 인터넷 서핑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주식, 게임, 문자 메시지 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비단 이같은 사례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공기관 인터넷 사용 내역 중 70% 이상이 포털 사이트 접속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생활인으로서 근무 중 업무용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단한 개인용무마저 막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일상사가 되거나 또다른 개인 업무로 치부된다면 더 이상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 양식과 도덕성 회복이 중요하며, 공공기관에서도 기강해이가 도를 넘지 않도록 자율 정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여름철 피부병 괴로우시죠

신삼식

장마철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이 많아지는 만큼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날씨가 덥고 습기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피부병에는 알레르기질환과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질환 그리고 아토피질환도 심해진다.

먼저 병해충이 늘어나면서 곤충, 나방, 송충이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이 그 예이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풀밭이나 나무 밑에 머문 경우나 매실을 딴 후에 잘 생기는데, 피부증상은 팔다리 몸에 작고 빨간 발진이 몸의 한곳에 집중돼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가려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냉습포, 멘톨 같은 항소양제, 호르몬제연고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되고, 가능하면 독나방이나 곤충을 없애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다.

여름철 가장 흔한 피부질환은 뭐니해도 무좀이 아닐까?

보통 성인의 약 40%가 무좀으로 고생하는데, 발에 땀이 많거나 씻은 후에 발을 안 말릴 때, 신발 양말이 꽉 끼거나 더운 날씨에 잘 생긴다. 그리고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피부 조각은 전염의 매개체가 된다. 가족간의 감염도 25%나 되어 가족 중 한 사람이 무좀이 있으면 다른 가족에게 전염되게 된다. 특히 발톱에 무좀이 있는 경우 만성적으로 발이나 몸으로 전염되는 원인이 된다.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발을 무좀용 비누로 잘 씻고, 신발은 말려서 신어야 한다. 무좀은 불치병은 아니지만 잘 낫지 않다 보니 시중에 떠도는 민간요법을 시도해 보다가 염증이 생겨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법은 꾸준히 연고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땀띠나 기저귀 발진이 많다. 사타구니, 엉덩이처럼 살이 겹치거나 기저귀와 닿는 부위에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칸디다균 감염을 감별해야한다.

증상은 피부가 붉고 거칠어지면서 점차 진물이 생기고 고름이 잡힌다. 심한 경우 통증이 심해 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까지 잃을 수 있다.

땀띠는 무더운 여름철에 땀이 많이 분비되는데 땀구멍이 막혀서 나가지 못하고 통로나 땀샘주위로 터져서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땀띠는 아기에게 잘 생기는데 꼭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방안이 덥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생길 수 있다. 아기들은 어른에 비해 땀샘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땀띠가 잘 생기는데 주로 땀샘이 있는 이마나 머리주변, 가슴, 목, 어깨 등에 흔하다.

증상은 처음에는 가렵지 않은 하얀 땀띠였다가 점차 염증을 일으키면서 붉은 땀띠로 변해간다. 하얀 땀띠는 증상이 없지만 붉은 땀띠일 경우에는 몹시 가렵고 따끔따끔하기 때문에 아기들은 참지 못하고 긁게 되면 세균이 감염돼 고름이 생기게 된다.

땀띠치료는 아이가 시원하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목욕은 자주 시켜서 청결히 해주며, 씻길 때는 가급적 비누를 쓰지 말고 찬 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씻기는 것이 좋다. 옷은 수분흡수가 잘되는 면옷으로 입히고, 땀에 젖은 옷은 자주 갈아입는 것이 좋다.

가려움이나 염증이 심할 때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로 가려움은 경감시킨다.

또한 땀띠분을 사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고를 바른 후 땀띠분을 뿌리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소금물이 땀띠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소금물로 피부를 마사지하거나 문지르는 것은 아이에게 가려움을 더해 줄 뿐이다.

여름철 피부건강과 피부질환예방을 위해서는 주위에 해충을 몰아내고, 샤워를 자주해 몸을 청결히 하며,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좋다.

〈상무맑은피부과 원장〉

기 고

100일 앞 다가온 F1대회, 참여가 성공 열쇠

주영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단일 스포츠 관람객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6만명이 참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는 F1대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시·도민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 14부터 3일간 영암에서 F1대회가 치러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시·도민이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열기를 다시 모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자 지난 3월 30일에 D-200일 기념 범도민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성황리에 끝나 올해에도 F1대회가 성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F1 대회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한 마당에 최근 일부 단체가 개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견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전남도의회에서 F1 추경예산이 통과된 만큼 이제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오직 F1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남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경주장 밖에서 F1대회 성공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도민의 몫이며 지역 곳곳에서 시가지 청결, 교통질서 준수, 서비스 개선운동 등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전남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F1대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깨끗한 전남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범도민지원협의회 주관으로 도내 곳곳에서 전개하고 있는 '친절·질서·청결' 운동에 전남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길 바란다.

아울러 F1대회 D-100일을 기념하여 오는 9일과 10일에는 'KIC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영암 경주장에서 개최된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합한 모터스포츠 대회와 5.61km 단축마라톤대회, 사파리체험 등 각종 이벤트와 함께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말에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도민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참석하여 F1대회 붐 조성과 함께 F1대회에 대한 도민의 참여 의지와 단합된 모습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F1대회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

목숨 다루는 병원 응급실 행패 절대 안 된다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하다 보면 긴급 치료를 위한 의술보다 싸움 말리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

한밤에 취객끼리 싸우다 발생한 부상 환자가 많이 찾기 때문이다. 취객 부상자들은 치료가 급한데도 치료를 거부하고 오히려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치료보다는 취한 환자를 달래고 붙잡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간신히 환자를 진정시켜 치료를 시작해도 문제다. 일부 취객이 인대 손상 등으로 병원에 오면 중소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 간단한 처치만 하고 상급병원으로 가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왜 치료 안 하느냐, 의사가 이런 거 하나 못하느냐" 등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한마디로 막무가내다.

그뿐 아니라 침대 시트는 물론 응급실 바닥에 오바이트를 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응급실 이용시에 추가로 붙는 응급 관리료 시비도 잦다. 응급 관리료는 대학병원 3만5000원, 중소병원 1만6000원 정도 된다. 홍보가 잘 안 돼서인지 환자들은 병원이 폭리를 취한다고 항의한다.

병원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공공의식도 중요하다. 응급실은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자신의 그릇된 행패로 인해 소중한 다른 사람의 목숨마저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공공장소에서 시민정신이 좀 발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유지영·목포시 수강동

無等鼓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東邦禮義之國). 중국인들이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예의 밝은 민족의 나라라고 평했다는 데 근거한 말이다. 산해경(山海經)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해 뜨는 동방의 예의지국' 또는 군자국(君子國)으로 일컬어 왔다. 중국 요순시대의 공자도 자기의 평생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우리의 민족성을 가리켜 '어진 사람'(仁人)이니 "사양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아니한다"(好讓不爭) 혹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잠그는 법이 없으며, 여자들은 정숙하고 믿음이 두터우며 음란하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중국사대주의에 입각해 나온 말이라고 질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예를 숭상하고 정이 넘쳐나는 민족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지하철에서 귀엽다고 아기를 만진 할머니를 아이의 엄마가 폭행하는 사건에 이어 20대 남성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엄마와 함께 탑승한 아이를 '귀엽다'면서 만지자 엄마라는 사람이 1.5리터 페트병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또 20대 남성은 지하철 내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가 옆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몸에 신발이 닿으니 다리를 내려 달라"고 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가 하는 무거운 심경을 떨칠 수 없었다.

오륜의 하나인 장유유서(長幼有序·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음)와 동방예의지국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들에게 이 동영상은 그야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질만능주의가 우리의 오랜 전통이자 정신마저 앗아간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